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현 문 수** · 전 보 배*** · 이 동 현****

1. 머리말
2. 노동 아카이브의 참여 기능
 - 1)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
 - 2) 참여 기능의 적용 범위
3. 참여형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 구축 실행
 - 1) 구축 대상
 - 2) 개발 도구
 - 3) 개발 절차
 - 4) 참여 기능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moonsoo925@gmail.com). 주요 논저 :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 Vol.41, 2014;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3, No.3, 2013.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

■투고일 : 2014년 9월 29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20일

[국문초록]

이 연구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부산 영도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 구축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참여형 기능을 갖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록 수집에서부터 아카이브 구축까지 기본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을 적용하면서도 특정 공간과 공간에서의 산업 경험을 공유한 주체들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실험에 사용한 도구는 오메카(omeka)이며, 개방형 소프트웨어 이면서도 참여 기능을 다양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을 다각적으로 연계한 콘텐츠 구축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실험에 적용하였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참여 주체와 맥락 및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기록은 소장처와 출처를 중심으로 집합을 구성한 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록 및 기술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사건, 인물, 사업장별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후속연구로 진행될 참여 실험을 위해 오메카 추가 기능 중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그 기능사용을 실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축 실험의 의미와 한계를 밝혔다.

주제어 : 참여형 아카이브, 노동 아카이브, 조선 산업, 로컬리티 기록화, 로컬리티 아카이브, 부산, 영도,

1. 머리말

“... 대한조선공사 노조 사무실의 캐비닛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서류 봉치들 속에서 필자가 마주했던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 노동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삶의 이야기, 동시대의 문체와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약자인 비정규 임시공들을 끌어안는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진취적인 노동운동을 꾸려간 우리 부모 세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

-남화숙,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글은 특정 공간에서의 노동 경험에 대한 기록화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드러낸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기록의 힘이 이러하다면, 당시 이 산업 공간과 노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 경험과 인접한 주변인이 그들의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의 힘은 어떠할까.

지역의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기록의 생산자나 소장자 및 기관의 참여의 중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¹⁾를 통해 강조된 바 있다. 또, 산업 노동자 집단 내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산업 노동 활동 및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한 집단 내·외의 상이한 이해와 해석 등의 이유로 이들 “노동 공동체의 경험을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필요성²⁾도 제기되었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공간에서 활동했던 주체들의 이야기를 웹 공간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나,³⁾ 지역

-
- 1)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207-230쪽;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한국기록학회, 2012, 3-44쪽; 현문수,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 41, 한국기록학회, 2014, 3-38쪽.
 - 2) 현문수, 위의 글, 2014, 8쪽.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보다 비교적 현대 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투어의 목적이 짙고 안내 성격이 강해, 공간과 공간에서 활동했던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부산 영도의 지리적 환경 하에 성장해온 조선(造船)산업 노동을 중심으로 그 로컬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외 참여형 기능을 갖춘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실제 구축시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기능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아카이브 구축 절차는 현문수의 연구⁴⁾에서 제안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역 산업 노동의 기억을 담은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점에 집중하며 그의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적용해봄으로써 기록 수집 및 공유에서부터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행해보고, 산업 노동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능성 역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부이나마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의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에 따라 대상 설정에서부터 참여 주체에 대한 조사, 기록 조사와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록과 맥락을 기술하였고, 이들 결과물을 다양하게 연계시키면서 지역의 산업 노동을 기억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제시하는 참여 원칙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아카이브의 기록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해보았다.

아카이브 구축 대상은 지역적으로는 부산의 영도, 산업으로는 조선(造船) 산업을 선정하였다. 영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강선을 건조

3) 금천구와 구로구가 공동으로 작업한 ‘구로공단 19662013’ 참조, [2014. 9. 18 인 용], <<http://www.gurogongdan.org/>>

4) 현문수, 앞의 글.

했던 역사를 지닌 곳이며,⁵⁾ 특히 1937년 설립된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이후 대한조선공사 및 한진중공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70년이 훌쩍 넘는 조선업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 역시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⁶⁾ 산업노동에 대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2009년 수빅조선소 건설⁷⁾과 영도 조선소의 수주량 감소⁸⁾, 한진중공업 신용등급 하락⁹⁾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도에서의 조선업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성장 둔화와 퇴락과도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오랜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인 영도를 중심으로 조선 산업 노동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활동 주체 및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억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아카이브 구축 실험 역시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위하여 개방형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오메카(omeka)를 활용하였다. 오메카는 해외 여러 중소규모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채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이 풍부하고 나아가 참여 기능을 지원하는 추가 모듈, 즉 플러그인을 다수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가 대상으로 선정한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 구축 실험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참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여 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능 수행의 가능성을 내부에서 실험해보았으며, 따라서 외부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실험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5) 영도구청, 영도구 향토사, 2002, 245쪽 참조.

6) 영도구청, 위의 글, 265-267쪽 참조.

7) 한진중공업 회사 연혁, [2014. 9. 2 인용], <<http://www.hanjinsc.com/company/history.aspx>>

8) 헤럴드경제, 겨울잠 깨는 한진중공업, 내년 봄 아파트 분양 재개, 2014. 10. 15. [online], [2014. 10. 16 인용],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015000197>>

9) 한국기업평가 공시, [2014. 9. 2 인용], <<http://www.rating.co.kr>>

2. 노동 아카이브의 참여 기능

1)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참여형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해외 아카이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미 그 기능 수행을 종료한 아카이브¹⁰⁾나 단순 태그달기 정도만 지원하는 아카이브¹¹⁾의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Bracer History Archive)¹²⁾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주 노동 프로그램을 기록화한 아카이브이다. 멕시코 인을 미국 농장 노동자로 이주시켰던 이 프로그램은 1942년 양국의 임시 협약으로 실시되다가 40여 년 전에 종료되었다. 국가 간 대규모 이주 노동 프로그램이었으면서도 양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 아카이브의 구축은 당시 프로그램은 물론, 멕시코인의 이주 노동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가 활용하고 있는 참여 기능은 기록 기증, 태그 달기, 기록에 메모 남기기 등이다. 기록 기증 기능의 경우는 이용자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멕시코는 물론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주 노동자 역사에 대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온라

10)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이나 영국 국립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이 그 예이다.

11) 영국 국립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 등이 그 예이다.

12) Bracero History Archive, About, [cited 2014. 9. 12], <<http://braceroarchive.org/about>>

인 기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그 달기와 메모 남기기 기능의 경우는 이용자 계정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었다. 즉,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사용자 검색용 태그, 기록에 의견, 즉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는 컬렉션 구성없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 기증된 기록 역시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기록 및 기록정보의 품질도 다양했다.

(2) 디아이와이 역사 아카이브(DIY History)¹³⁾

디아이와이 역사 아카이브는 2011년 초 아이오와(Iowa) 대학 도서관 주도로 “Civil War Diaries & Letters Transcription Project”의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실험과제로 시작된 아카이브이다. 이후 일기와 편지 이외에 다양한 수기기록(manuscript)으로 아카이브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DIY History’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Primary Source Award for Access”라는 연구도서관센터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1년 봄부터 2012년 가을까지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원한 참여자들이 만 오천여 페이지를 전사한 결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남북전쟁 당시 일기와 편지를 거의 완전히 전사할 수 있었으며, 그 대상을 더 확장하여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사 작업은 오메카의 ‘스크립토’라는 추가 모듈을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특히 참여 집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자원자에게 전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고 있었다.

13) DIY History, About the project. [cited 2014. 9. 12]. (<<http://diyhistory.lib.uiowa.edu/about.php>>)

(3) 911 디지털 아카이브(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¹⁴⁾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졌던 참사에 대한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처음에는 알프레드 슬론(Alfred P. Sloan) 재단 후원으로 조지 맨슨(George Manson) 대학의 로이 로젠즈바이그 역사/뉴미디어 센터(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 New Media)와 뉴욕시립대 대학원 센터가 미국 사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3년 9월 미국 의회도서관이 이 아카이브를 컬렉션으로 받으면서 수집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당시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이야기, 사진, 구술, 동영상 등을 기증(Contribute)받고 있다. 기증자 제한 없이 누구나 해당 디지털 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증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증된 기록은 별도의 기증 컬렉션으로 배치되며, 기증 컬렉션은 다시 기증된 기록의 유형에 따라 하위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참여자의 기록 기증 이후 컬렉션 지정이나 계층 설정을 포함하여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아카이브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Citizen Archivist Dashboard)¹⁵⁾

미국 국립기록청(NARA)은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 페이지를 통해 기록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참여 기능을 마련하고 있었다.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참여

14)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About, [cited 2014. 9. 12]. <<http://911digitalarchive.org/about>>

15)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About, [cited 2014. 9. 12]. <<http://911digitalarchive.org/about>>

기능은 태그 달기(tag), 전사하기(transcribe), 지식정보 작성, (사진)공유, 항해일지 전사이다. 즉, 등록된 이용자는 각각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록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으며,¹⁶⁾ 아카이브의 위키소스(Wikisource) 공간을 활용하여 문서를 전사할 수 있고,¹⁷⁾ 아카이브 위키 페이지를 통해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¹⁸⁾ 플리커(flickr)를 기반으로 사진을 공유하고,¹⁹⁾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수기 항해일지(logbook)를 전사²⁰⁾할 수 있다. 아카이브의 위키 페이지 활용과 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록의 전사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플리커와 같이 대중적인 툴을 연결하여 사진을 기증받고 있는 등 비교적 다양한 참여 기능을 아카이브에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참여 기능의 적용 범위

본 연구가 구축할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참여 기능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우선 앞 절에서 살펴본 아카이브가 활용하고 있는 참여 기능과 주요 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16) Tag records and images, [cited 2014. 9. 15],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tag/>>

17) Transcribe documents, [cited 2014. 9. 15],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transcribe/>>

18) Edit Articles, [cited 2014. 9. 15],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edit/>>

19) Upload and share, [cited 2014. 9. 15],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upload-and-share/>>

20) Old weather, [cited 2014. 9. 15],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old-weather/>>

〈표 1〉 사례 아카이브가 활용한 참여 기능

아카이브	활용한 참여 기능	내용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기증 ■ 태그 달기 ■ 기록에 메모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이주 노동 경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야기, 사진, 동영상, 음성 기록 기증 유도 ■ 계정 등록된 사용자가 기록에 태그 및 메모 입력 기능 지원 ■ 컬렉션 구성 없이 기증 기록을 편입
디아이와이 역사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참여자가 수기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 입력 ■ 타 참여자의 검토 가능
911 디지털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이야기, 사진, 동영상, 음성 기록 기증을 유도 ■ 기증 기록을 별도의 기증 컬렉션에 편입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기증 ■ 전사하기(기록/항해일지) ■ 태그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키페이지(기록) 및 oldweather.org(항해일지)를 활용해 전사 작업 지원 ■ 등록된 이용자에게 태그 달기 지원 ■ 아카이브 위키 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식 정보 공유 지원

앞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사(transcription)’, ‘의견 달기(comment)’, ‘기록 기증’, ‘태그 달기’ 기능을 적용 실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형태의 문서 기록 내용을 텍스트 입력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오래된 비디지털 기록이 많은 영도 조선 노동 기록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므로 전사 기능은 중요한 참여 기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 생산된 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비디지털 형태이며, 수기(手記)기록이거나 원본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아 글자를 읽기 힘든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수집한 기록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생산한 노동 신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이 많았으며, 타자기로 작성된 비교적 최근 문서 역시 번짐이나 종이 훼손 등으로 가독성이 낮은 기록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전사 기능을 활용한 참여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하는 아카이브 측면에서 본다면 기록의 내용에 대

한 이해나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아카이브의 이용자 관점에서는 아카이브 소장 기록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 여겨졌다.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 기능 중 다른 하나로 태그 달기 기능도 선정하였다. 이는 기록에 담긴 내용이나 사건, 인물 등에 대한 키워드를 참여 주체가 기술정보(descriptive information)에 추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 중에는 오래된 기록의 경우 제목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기술정보만으로 충분히 검색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태그 달기는 이러한 기록의 검색 가능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기능으로, 노동 기록의 생산 맥락과 맞아맞아있는 노동 활동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아키비스트의 기술 작업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미국 국립기록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며, 비교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능으로 여겨지는 점 역시 강점으로 여겨진다.

의견 달기는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 및 기술정보에 대해 댓글 달기 형식으로 참여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록의 내용에 대한 개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중층적인 의견 개진 구조를 적용한다면, 기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참여 주체의 태도까지 원 기록과 함께 묶일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기록 기증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증 방식의 참여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여 주체는 아카이브에 마련된 기록 기증 기능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소장하고 있는 기록과 그에 대한 정보를 아카이브로 전송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는 기존 수집 기록의 결락을 참여의 방식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어 중요한 참여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영도

에서의 조선 산업 역사가 긴만큼, 생산된 기록이 여러 소장처에 분산되어 있거나, 다수의 개인 소장품으로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기록 기증 기능은 아카이브의 구축과 성장에 필수적 기능이라 판단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기록에서 ... 노동자들이 직접 쓴 이야기로의 확장”²¹⁾ 역시 이러한 참여 기능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911 아카이브의 사례에서와 같이 참가 수준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대중과 공유하여 사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²²⁾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 상에서 기증된 기록이 컬렉션에 포함되고, 기록 기증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참여 주체와 아카이브 사이의 신뢰 형성의 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참여형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 구축 실행

1) 구축 대상²³⁾

본 연구의 아카이브 구축 대상 지역은 부산의 영도이며, 대상 산업은 조선(造船) 산업이다. 주요 구축 대상 기록은 산업 노동 활동에서 산출된 기록과 산업 노동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지역의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영도는 일본의 이익을 도모할 계획에 의해 조선 산업의 싹이 튼 지역이다. 당시 일본은

21) 한내 아키비스트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22)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About, [cited 2014. 9. 12]. (<http://911digitalarchive.org/about>)

23) 영도구청, 앞의 글, 244~270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아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나아가 동남아를 점령할 계획으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을 조선공업기지로 확보하였다. 해방 이전까지 영도는, 조선 내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비롯하여 선박 수리와 건조(建造), 제작 기업이 자리 잡은, 조선 부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다. 당시 이곳에는 조선업체 및 관련 기업체가 60여개에 달하고 있었으며, 내연기관을 제작하는 기업체도 10여 개에 달했다.

철강 조선 산업의 모태인 '조선중공업주식회사'도 일제강점기인 1937년 7월 영도 봉래동에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 조선중공업은 설비 시설 그대로 국책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었으며 1949년 명칭도 '대한조선공사'로 변경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부가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육성책을 추진하였으나 대한조선공사의 자금난과 기술 낙후, 시설 노후 등 국책회사로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1962년 대한조선공사를 공매했으며, 1968년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로 민영화되고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표 조선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1989년 대한조선공사는 다시 한진그룹에 매각되어,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도에는 한진중공업으로 이어지는 봉래동 조선소 이외에도 중소/군소 조선업체가 30여 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대선조선'도 한진중공업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합정리 방침에 따라 우동공, 울본, 부삼조선소가 '조선선박공업 주식회사'로 통합되었으며, 공해조선소와 서부조선소가 1970년대 통합되어 대선조선이 되었다. 해방 이후 영도 지역은 영선동, 봉래동, 청학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조선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영도에서 일찍부터 조선 산업이 발달한 곳인 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노동 운동도 일찍 시작되었다. 1925년 영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영선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소유의 조선공업체 노동

자들이 모여 조선공업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그것이다. 1930년대 일본이 부산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조선공업체 노동조합 운동은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으나 당시 치안유지법과 탄압으로 노동운동은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영도 조선 노동운동사는 특히 대한조선공사 노동운동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9년까지 10년에 걸쳐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운동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남화숙의 연구²⁴⁾를 통해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이어진 대한조선공사의 단협투쟁은 196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 중 하나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이 몰락하게 되었다. 1970년대 국가발전의 명목 하에 노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없었다. 모든 노조 활동은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8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없었으며,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파업과 함께 대한조선공사의 노동 운동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영도 대동조선의 노동 운동은 특이한 사례인데, 1970년대 초반 어음부도로 도산위기에 몰렸던 대동조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심덕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상여금은 물론 월급 수령도 미루는 등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대동조선은 도산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대동조선의 이 노동 운동은 다른 기업의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주어, 남양어망의 ‘일심운동’, 동양고무의 ‘한마음운동’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2) 개발 도구

실제 참여형 조선 노동 아카이브를 디지털 환경에 구축하기 위한 도

24) 남화숙,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3.

구로 본 연구는 ‘오메카(omeka)²⁵⁾라는 개방형(open source)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다. 오메카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면, 오메카는 앤드류 W. 멜론 재단,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알프레드 P. 슬론 재단, 사무엘 H. 크레스 재단 등 미 연방 기구와 사립 재단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리눅스(Linux) 기반의 웹 콘텐츠 제작 도구로 문화유산 컬렉션을 웹 공간에서 다양한 내러티브의 구조로 보여주고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²⁶⁾ 특히 설치와 이용이 쉽고, DC 기반의 정보 관리를 통해 컬렉션 관리와 디지털 컬렉션 관리, 웹 콘텐츠 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콘텐츠 재사용 기능이 제공되며 이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등 웹2.0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언급되고 있다.²⁷⁾

본 연구가 오메카를 구축 실행에 활용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향한다’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의 5번째 원칙²⁸⁾에 따라 아카이브 구축 소프트웨어 역시 다양한 정보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녹아 있는 도구를 사용할 때 참여형 조선 노동 아카이브 구축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초기 아카이브 구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의 실험 적용은 물론,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은 소규모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비전문가인 산업 노동 활동의 주체가 아카이브의 관리의 주체가 되더라도 용이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셋째, 여러 활동 주체와 상호작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추가 모듈, 즉 플러그인(plugin)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25) 오메카 사이트를 통해 ‘omeka’라는 용어는 스와힐리어로 ‘보여주다’, ‘소리 내어 말하다’, ‘펼치다’, ‘풀다’ 등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6) Omeka: serious web publishing. [cited 2014. 9. 2], <<http://omeka.org/about/>>

27) Omeka feature list. [cited 2014. 9. 2], <<http://omeka.org/files/docs/Featurelist.pdf>>

28) 현문수, 앞의 글, 26쪽.

개발 및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의 ‘참여형’ 특징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넷째, 풍부한 전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 및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동 운동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의 생산 의도가 활동 주체별로 상이할 수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억을 하나의 내러티브가 아닌 다양한 내러티브로 기록화할 수 있는 도구로 전시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오메카는 한글 데이터의 입력이나 표현은 가능하나, 메뉴나 설명 문구, 메타데이터 레이블 등의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전문가들이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소스를 공개하거나, 별도 비용을 투입하여 한글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메카 영문 버전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및 참여 기능 구현 실행을 실험하였다.

3) 개발 절차

(1) 대상 범위 설정

이 연구는 앞서 밝힌 것처럼 지역으로는 부산 영도를, 산업으로는 조선 산업을 아카이브 구축 범위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노동 운동의 기록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설정된 지역 및 산업 범위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구축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로, 영도구청의 산출물인 「영도구 향토사」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조선 산업에 대한 연구와 분야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동향, 신문기사 등을 살펴 보면서 대강의 맥락을 스케치하였으며, 관련 기록의 소재도 예비 확인하였다. 예비 맥락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가와 관련 연구자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조사는 참여 주체 조사를 통해 심화해나갔다.

대상 공간인 영도는 철강선 건조를 전문으로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1937년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1970년대까지도 한국의 조선은 물론 기계 공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자리잡은 공간이기도 하였다.²⁹⁾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조선 산업 분야의 노동 운동은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면서 합법적으로 국가가 노동 운동을 보장해주면서 활발히 시작되었다.³⁰⁾ 이에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 이후의 기록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되, 일제강점기 시기 기록 역시 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는 영도의 조선 산업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기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참여 주체 조사

본 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조선 노동 아카이브의 특징을 참여형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맥락 조사와 함께 참여 주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현직 노동자, 노동자 주변인물, 노동운동/산업 연구자, 기록관리 전문가 등 크게 4개 유형의 참여자 그룹을 나누어 그 대상들 <표 2>와 같이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참여 기능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자의 유형화를 통해 각 그룹이 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 단계 및 운영 단계별 참여 기능을 구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각 유형별 주요 역할은 현문수가 제안한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에서 제안하고 있는 참여 기능³¹⁾을

29) 신원철, 「기업별 노동조합과 고용 관계 :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사례」, 『사회와역사』, 제60권, 한국사회사학회, 2001, 99쪽.

30) 신원철, 위의 글, 108쪽.

31) 현문수, 앞의 글, 31쪽.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참여기능은 실제 오메카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참여시기는 아카이브 구축 이전 사전 조사부터 구축 시작 시기, 아카이브 구축 과정의 시기, 아카이브 최초 구축 종료부터 지속적인 운영 시기를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표 2〉 참여 주체 유형

유형 구분	개요	특징	사례	주요 역할	참여기능	참여 시기
노동자 (전·현)	노동운동의 주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개인/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기록 및 기록 생산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기증/공유 		2단계
노동자 주변인물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노동운동을 주변에서 경험한 개인/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인으로서 노동운동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경험,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가족 ■ 노동자의 친구 ■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기술 ■ 의견달기/태그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록 기증 ■ 기록 내용 전사 ■ 사건 맥락/기록 내용 해설 ■ 의견 달기 	3단계
관련 연구자	조선 산업이나 이 분야 노동운동을 주제로 연구 및 출판 활동을 하는 개인/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나 기록에 대한 맥락, 이해도가 높음 ■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운동 분야 연구자 ■ 노동운동 관련 단행본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구축 ■ 맥락기술 ■ 의견달기/태그달기 		1단계
기록 전문가	특히 노동기록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거나 관심이 있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구조 설계나 재현 방식, 운영 관련 지식이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록 전문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구축 ■ 기록관리과정 - 기록 정리/평가 - 문서화 및 가이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션 구조 설정 ■ 정보 기술 ■ 콘텐츠 구성 (기록 배치 등) 	1단계

우선 노동자 그룹은 실제 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 노동운동

의 주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설정하고 조사하였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당사자이면서 노동기록의 생산주체이자 관리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개별 기록이나 기록 생산에 대한 맥락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거 및 현재 노동활동의 주체가 그 대상이며, 예를 들면 조선중공업, 대한조선공사, 한진중공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보관 중인 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증 및 공유할 수 있고, 기록과 맥락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에 등록된 기록의 맥락을 기술하거나 기록에 대해 의견 및 태그를 다는 방식으로 아카이브에 참여할 수 있다. 아카이브 구축 요구가 특정 노동 조합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는 한, 아카이브 구축 구상 단계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³²⁾ 본 연구는 아카이브 구축을 구상하고 구축 및 운영 방안이 틀을 갖춘 다음부터 노동자 집단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노동자 주변인물 그룹은 영도지역의 조선 산업 분야 노동 경험은 없지만 노동자의 가족이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역시 노동운동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거나 사진, 물품 등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사건과 기록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아카이브와 공유할 수 있으며, 노동자 유형과 동일하게 기록의 맥락 기술, 의견 및 태그 달기 등의 방식으로 아카이브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자 주변인물은 기록에 대한 이해도의 측면이나 기록 공유 등의 요구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노동자 그룹보다도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므로,³³⁾ 이들을 대상으

32) 신원철과의 면담, 2014. 5. 22;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33) 박성호와의 면담, 2014. 10. 16.

로 한 참여 기능 확대는 일단 최초 아카이브 구축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관련 연구자 그룹은 조선 산업이나 이 분야 노동 운동 연구자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조사하였는데, 대상 설정 과정에서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연구의 저자나 신문기사의 작성자 등이 그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조선 노동운동 기록의 생산 주체는 아니나, 기 생산된 기록과 노동운동 사건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노동자 그룹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지며 심도 있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그룹으로 구분하고 조사하였다. 이들의 경우 일부 연구에 활용했던 기록이나 기사 등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사본이며 여타 소장처에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로 확인되어 기록 기증과 공유보다는 기록에 대한 맥락 기술과 의견 및 태그 달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소수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초기부터 접촉했던 연구자 그룹의 구성원은 아카이브 구축 이전부터 기록 소재에 대한 정보 확인이나 구축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초기 단계인 1단계부터 활동 가능한 참여 주체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 전문가 그룹은 특히 노동기록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거나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설정하였으며,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나 한대와 같은 노동 아카이브 성격을 띠는 기록관 종사자나 지역 산업과 노동운동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의 경우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의 틀이나 기록 정리와 기술 방식, 기록을 통한 재현 방식, 필요한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1단계부터 활동 가능한 참여 주체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조사한 참여 주체는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서식’³⁴⁾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참여 주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기본 서식과 각 역할에 따른 세부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세부 서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서식-기본(초안)

관리번호	BS_SB_2014_0001		
참여 주체 조사 서식 - 기본			
참여 주체	민주공원 민주주의 아카이브	소속	
		개인전화	051) 790-7482
		이메일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일원 (http://www.demopark.or.kr/main/sub_archive.asp)		
전문분야	아카이브, 민주주의, 노동		
활동연혁	날짜	1999년 10월 16일(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일) - 현재	
	주요지역	부산	
	주요활동	- 1995년 : 본회 이사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탑,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결의함 - 1996년 :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1999년 : 민주공원 개관	
예상되는 참여 기능	기본 (복수표기 가능)	① 아카이브 구축 ② 기증/수집/기록 공유 ③ 기록 맥락기술	④ 정리/평가 ⑤ 의견달기/태그달기 ⑥ 기타 (추가 기능 작성)
	추가 기능		
관련 참여 주체 소개	이름	한OO	
	개인전화	000-0000-0000	
	예상 역할	②	
작성일/ 작성자	최초	2014. 9. 17 / 이동현	
	갱신		갱신 사유
참고자료			
주 기	민주공원 민주주의 아카이브에는 부산 영도지역 조선(造船)노동 기록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으며 학술연구기관·교육기관·언론사·시민단체·일반시민 등에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현문수, 앞의 글, 31~32쪽.

〈그림 2〉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세부 서식 - 기록 기증/수집/공유용(초안)

관리번호	BS_SB_2014_0001_02		
참여 주체 조사 서식 - ② 기록 기증/수집/공유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잠재적소장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장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리드 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여 주체	민주공원 민주주의 아카이브		
소장 기록	▶ 문서류 ① 애국시민, 학생,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주장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89) ② 부정, 부패, 비리를 과감히 파헤치자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87) ③ 전보 (1, 2)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68) ④ 구호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68) ⑤ 출석요구서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68) ▶ 간행물 ① 거북선 (2, 8, 9, 10호)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88~1989) ② 교육지 (창간호, 2, 3, 4, 5, 6, 7호)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89) ③ 조공노동자신문 (7, 9호) - 조선공사 노조 정상화 추진위원회 (1989) ④ 조공노동자신문(특집호)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1987) ※ 총 36권의 부산 영도지역 조선(造船)노동 기록물 소장		
작성일/ 작성자	최초	2014. 07. 02 / 이동현	
	갱신	2014. 9. 16 / 이동현	갱신 사유 기록 디지털화 작업 내용 추가
참고자료			
주기	9월 말 방문하여 매뉴스크립트 기록을 디지털화하기로 함		

(3) 맥락 및 기록 조사와 수집

참여 주체 조사와 함께 영도 지역의 조선 산업 노동과 관련한 맥락 조사와 기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맥락 조사는 예비 조사에서부터 참고했던 영도구 향토지를 시작으로, 단행본,³⁵⁾ 학술논문, 웹사이트, 신문기사, 방송 등을 조사하였으며, 기업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추가 분석도 진행하였다.

35) 남화숙,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3; 허소희, 김은민, 박지선, 오도엽, 『종이배를 접는 시간』, 삶창, 2013.

맥락 조사는 아래 그림과 같은 매트릭스를 작성하면서 진행하였다. 매트릭스는 주요 시기별로 일어난 사건,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 사건의 활동 주체, 개요, 생산이 확인되었거나 생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 정보를 함께 작성하면서 추후 맥락 기술과 기록 기술을 연결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맥락 조사와 기록 조사로 확인된 기록 및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소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도 함께 기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소장처에 대해서는 앞서 사례로 제시한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기록 기증/수집/공유용)을 추가 작성하였다. <그림 3>은 맥락 및 기록 조사용 매트릭스 초안의 사례이며,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이어졌던 단체협약투쟁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기록 수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디지털화되지 않은 매뉴스크립트의 경우 개별 기록 소장처에 본 연구진이 방문하여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와 맥락 조사를 통해 소장처 중 민주주의 아카이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부산지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가기록원 등이 주요 기록 소장기관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기관 및 단체와 접촉하여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를 통한 공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기록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이 발행한 「교육지」, 「조공노동자신문」, 노보인 「거북선」 등의 발간물과 함께 이 노동조합이 60년대와 80년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을 다량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민주주의 아카이브 측과 협의하여 기록의 디지털화와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협의하였으며, 연구진이 기관에 방문하여 앞서 확인한 기록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시점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아카이브와 민주노총 부산지부의 기록은 현재 디지털화를 완료하여 수집하였으며,

〈그림 3〉 맥락 및 기록 조사용 매트릭스(초안) : 1968년~1969년 단체협약 사례

시기	사건	공간	활동 주체	사건 개요	생산(예상) 기록	소장처
1968 -1969	대한조선공사 단체협약투쟁	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조선공사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조선공사 민영화와 노동탄압으로 1968년 3월~1969년 10월까지 장기간 계속된 연좌농성, 시위, 노동쟁의 및 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서 (1968-03-22) · 전국해상노동조합 대한조선공사 지부 조직도[196-] · 구호 · 전보1, 2 · 판정서 · 중재 위원회 개최 · 단체교섭 제의 · 단체교섭 제의에 대한 회신 · 단체교섭 재촉구 · 단체교섭 재촉구에 대한 회신 · 불법 파업사태 수습요청 · 노동쟁의 적법판정 및 조정통지 · 엘, 에스, 리 긴급공사 취업 촉구 · 쟁의행위금지 지시 · 단체협약 준수 촉구 및 노사협의 제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아카이브 ■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기록의 경우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을 조사 중에 있다.

둘째, 이미 디지털화되어 공유되고 있는 기록의 경우 기록 소장처나 소장자와 접촉하여 기록 정보 및 디지털 파일의 공유에 대해 허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아카이브가 혼합형, 즉

본 아카이브 소유의 기록은 물론 타 소장처 기록에 대한 안내 역할까지 포괄할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앞선 조사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 부산지부, 국가기록원, 국회, 개인 트위터 등이 관련 디지털 기록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부산지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노동운동 당시 디지털 사진 기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노동가요 음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단체와 접촉, 협약하여 해당 기록의 사본을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수집하였다. 국가기록이 소장한 사진과 동영상 등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트위터 기록, 기타 개인 소장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디지털 기록은 2000년대 이후 기록이었다.

로컬리티 기록화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 신문기록을 비롯하여 단행본, 웹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들은 출판물이거나 원문 자체의 수집에 필요한 권한 문제가 복잡하여 이에 대해서는 기사 원문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신 이들 자료에 대한 소재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기록 기술

다음으로, 참여 주체와 맥락 및 기록 조사를 거쳐 수집된 기록 및 기록정보를 대상으로 컬렉션 단위의 집합을 구성하였으며, 오메카가 제공하는 DC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오메카는 기본적으로 컬렉션과 아이템의 2계층, 즉 기록을 중심으로 한 단일 개체 중심의 기록 정리 및 기술 구조를 지원한다. 본 연구가 수집하는 기록의 계층을 3계층 이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

원하는 ‘컬렉션트리(collection tree)’ 추가 모듈을 설치하여 다계층 기술도 일부 진행하였다.

수집 기록의 계층 설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산되면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은 그 생산 주체가 소장 및 관리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생산 출처를 존중하여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가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용 허가 하에 수집한 사진과 글은 ‘김진숙 컬렉션’으로, 국회에서 생산된 청문회 기록은 ‘국회 컬렉션’으로 묶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 디지털화하여 수집한 기록의 원 출처를 살펴보니, 개인 기록을 제외하면 거의 노동 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문서로 확인되지만 원본은 민주주의 아카이브나 민주노총 부산지부 등 여러 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었다. 또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도 공보처 등이 원 생산자이지만 현재는 이관되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 기록의 경우는 생산 시기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인 경우가 많은데, 기록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원 출처와도 유리된 경우이거나 상위 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록 정리의 원칙에 따라 조직 기록의 경우 한 출처에서 나온 기록은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주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래 생산 맥락에서 이미 유리되어 소장처의 별도 컬렉션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상위 컬렉션의 경우 소장처 정보와 원출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으며 원 출처가 대한조선공사인 기록의 경우 ‘민주주의 아카이브-대한조선공사 컬렉션’으로 컬렉션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상위 컬렉션 단위의 집합을 확인한 후 시기나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위 계층을 설정하였다.

〈그림 4〉 컬렉션 구조 사례



기록 기술은 오메카가 제공하는 15개 기본 DC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기술하였으며, 기록의 유형에 따라 추가 제공되는 메타데이터(item type metadata)³⁶⁾도 함께 기술하였다.

36) 하이퍼링크, 데이터세트, 이메일, 이벤트, 상호작용 자원, 교육 계획, 동영상, 기술, 사람, 물리적 객체, 서비스, 소프트웨어, 소리, 사진, 텍스트,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록 유형의 기술을 지원한다.

〈그림 5〉 기술정보 입력 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Edit Item' page for '출석요구서 (1968-03-22)'. The interface include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Dublin Core, Item Type Metadata, Scripto, Zotero, Files, Tags, and Map.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Dublin Core, Creator, Date, and Description, each with an 'Add Input' button and a 'Use HTML' checkbox. The Title field contains '출석요구서 (1968-03-22)'. The Creator field contains '부산시 지방 노동위원회' and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The Date field contains '1968-03-22'. On the right side, there are buttons for 'Save Changes', 'View Public Page', and 'Delete', along with a 'Collection' dropdown menu set to '1968년-1969년 단행본명 시리즈'.

아카이브 내의 입력 화면을 통해 건 단위 입력도 가능하지만,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는 기 작성된 대량의 기록정보를 한 번에 아카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에카 추가 모듈 중 엑셀 파일을 활용한 csv 파일 가져오기(CSV Import) 모듈을 설치하고 기술정보 축적에 활용하였다. 이상 기록의 기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설치한 오메가 모듈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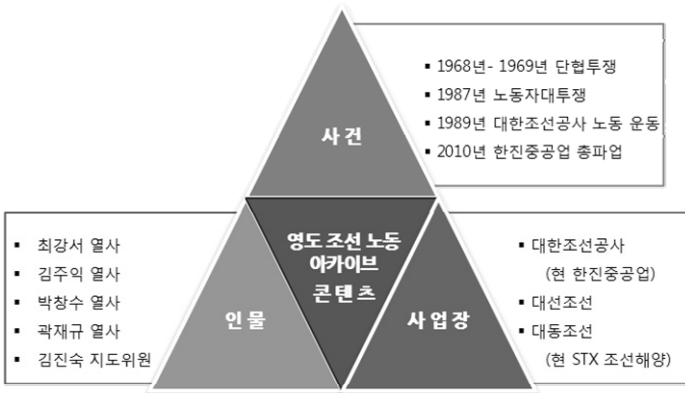
<표 3> 기록 기술을 위해 설치한 추가 모듈

추가 모듈명	내용	아카이브 적용
컬렉션 트리 (Collection T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이상 계층 설정 지원 ■ 별도로 컬렉션 트리 이용자 화면 제공 	다계층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csv 파일 가져오기 (CSV Im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기록 정보의 배치 업로드 지원 	엑셀 파일을 활용해 기 작성된 기록 정보를 일일이 아카이브에 입력하지 않고 배치 작업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용

(5) 맥락 기술 및 콘텐츠 구축

본 연구가 정리 및 기술한 기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앞서 조사한 맥락 정보 및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콘텐츠는 영도의 조선 산업 노동의 범주 안에서 현재까지 본 연구가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 6>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6> 영도 조선 노동 아카이브의 콘텐츠 구성도



기본적으로는 영도 조선 산업 노동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주요 사건, 관련 인물, 조선소 등의 사업장을 축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각 콘텐츠별 하위 콘텐츠를 구성해보았다. 현재 수집된 기록의 대부분이 대한조선공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이어지는 봉래동 조선소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구성 역시 이를 바탕으로 대한조선공사와 한진중공업을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 콘텐츠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한진중공업이나 대선조선, STX 이외에 다양한 기업 및 사업장의 기록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추가 수집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추가 기록 수집에 따라 콘텐츠 구축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

콘텐츠 구축 역시 <표 4>와 같이 오메카의 추가 모듈인 전시 구축(Exhibits Builder)을 설치하여 적용하였다.

<표 4> 콘텐츠 구축을 위해 설치한 추가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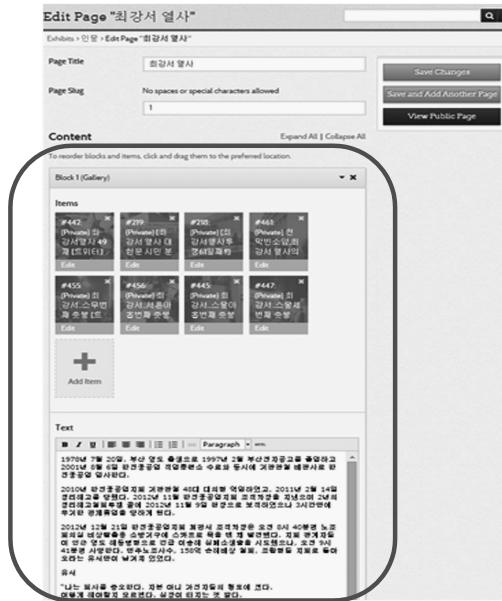
추가 모듈명	내용	아카이브 적용
전시 구축 (Exhibit Buil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시 구성 및 이를 활용한 한 페이지 작성 지원 ■ 아카이브 내 기록과 내러티브 기술을 함께 활용한 전시 구성 지원 	출처 기반의 컬렉션 구성으로 인해 사건이나 인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기록을 연계하며, 기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전시 공간 구축에 활용

우선 사건, 인물, 사업장 콘텐츠를 생성한 후, <그림 7>과 같이 각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보를 기술하고 이에 속할 하위 콘텐츠 구조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하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림 8>에 표시된 둥근 사각형의 부분에 하위 콘텐츠에 연계될 기록을 선택하고 서비스 화면에서의 배치 모양을 정한 후, 각 하위 콘텐츠의 맥락 정보를 함께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7〉 콘텐츠 구성 사례 - 인물



〈그림 8〉 인물 하위 콘텐츠 구성 사례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는 아카이브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그림 9)와 같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인물 - 최강서 열사(하위 콘텐츠) 전시 화면 사례

최강서 열사



최강서 열사 49재 (트위터)

1978년 7월 20일 부산 영도 출생으로 1997년 2월 부산전차공고를 졸업하고 2000년 8월 6일 한진중공업 직업훈련소 수료와 동시에 기관관철 배려사로 한진중공업 입사한다.

2010년 한진중공업지회 기관관철 48대 대의원 역임하였고, 2011년 2월 14일 정리회고를 당했다. 2012년 11월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을 지냈으며 2년의 정리회고철폐투쟁 끝에 2012년 11월 9일 현장으로 보직하였으나 3시간만에 무기한 강제휴업을 당하게 된다.

2012년 12월 21일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은 오전 8시 40분경 노조 회의실 비상탈출용 소방기구에 스킵로 폭탄 던져 발견됐다. 지회 관계자들이 인근 영도 해동병원으로 긴급이송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전 9시 41분경 사망한다. 민주노조사수, 158억 손해배상 철폐, 조합원을 지회로 끌어오라는 유서만이 남겨져 있었다.

유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자들의 함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사수 하라 손해배상철폐하라. 태어나 죽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끌어오세요. 동지를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다. 까?? 국 풀이와서 승인해주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최강서 열사 대한문 시민 분향소 (트위터)

최강서 열사후경 61일제기 (트위터)

전력반소할 최강서 열사의 아내 (트위터)

최강서 서울이중반복 숭배 (트위터)

최강서 스물아중반복 숭배 (트위터)

4) 참여 기능

본 연구는 부산의 영도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인 조선 산업의 노동 기

록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실행하였으며, 그 특징을 참여형으로 하였다.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기능을 구현해보기 위하여 오메카에서 제공하는 추가 모듈 중 다음의 <표 5>의 내용을 설치하였다.

<표 5>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추가 모듈 설치 내역

추가 모듈명	내용	참여 역할	기능 설치
스크립토 (scrip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위키 기반 • 이미지 형태 문서 내용의 텍스트 전사(transcribe)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형태 문서 내용 전사 • 문서 내용에 대한 해석/해설 작성 	완료
의견 달기 (comme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기록에 이용자 주석 작성 • 댓글 형식(중층 댓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에 대한 의견이나 주석 작성 	완료
기록 기증하기 (con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의 기능을 통해 온 라인 기록 기증 • 이야기(story), 사진(image), 구술(oral history), 소리(sound), 동영상(moving image) 등의 유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현물 기록의 사진/동영상 기증 • 소장 디지털 기록의 기증 •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작성이나 구술녹음 및 녹화하여 공유 	완료
태그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의 검색과 이용을 돕기 위해 태그(tag)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기술정보로 포괄할 수 없는 키워드를 이용자가 직접 부여 	완료 (관리자)

이 중 본 연구는 스크립토와 의견 달기, 기증하기 기능을 설치하여 적용 실험해보았다. 태그 달기 기능의 경우 현재 아카이브 구축에 사용한 오메카 버전(v.2.2)의 경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이용자에 한해 관리자 메뉴 중 하나로 태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처럼 오메카 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아카이브의 경우 공개용 화면에서 이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하면 관리자 메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나, 오메카 버전 갱신 후 이 기능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는 것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능 실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향후 실제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오메카 기능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태그 달기 기능을 적용하고자 한다.

(1) 스크립토

스크립토(scripto)는 미디어 위키(MediaWik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되는 추가 모듈로, 이미지 형태의 문서 내용을 크라우드소스(crowdsource)를 활용해 텍스트 전사(transcription)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³⁷⁾ 스크립토를 설치하기 위해 본 연구가 구축할 아카이브 공간에 미디어 위키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하였으며, 스크립토 기능을 활용해 참여로 작성된 기록의 전사 내용이나 해석은 다시 미디어 위키 내용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개별 기록 단위로 전사 및 해석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아카이브의 미디어 위키 공간을 통해서 기록된 전사 및 해석 내용을 볼 수도 있다.

스크립토의 기능 작동 실험을 위해, 사례 기록을 대상으로 기록의 내용을 전사하는 작업과 해석을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아이템 단위 기록을 열람하다가 전사하고자 하는 기록을 선택했을 때, 〈그림 10〉과 같이 이미지 문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입력란이 보이며, 이 입력란에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 완료(edit transcription)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었다. 이렇게 저장된 전사 내용은 수정할 수도 있고, 타 작성자의 작업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 전사 내용은 물론 그 갱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37) Plugins/Scripto 2.0. (http://omeka.org/codex/Plugins/Scripto_2.0)

〈그림 10〉 내용 전사하기 사례



(2) 의견 달기

의견 달기(commenting) 기능은 개별 기록이나 전시에 대해 이용자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³⁸⁾ 보통 사용되는 댓글 달기와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데, 단편적인 의견 작성은 물론이고, 한 이용자가 작성한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이용자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중첩 의견달기(threaded comments), 즉 댓글에 댓글달기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기록과 상관없는 의견이나 악의적인 댓글 작성 등을 고려해 관리자가 기 작성된 의견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선택 사항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 또한 관리 기능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38) Plugins/Commenting 2.0. <http://omeka.org/codex/Plugins/Commenting_2.0>

의견 달기 기능 작동 실험을 위해, 사례 기록을 대상으로 의견을 달아보았다. 아카이브 관리 기능을 통해 의견 달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아이템 단위 기록의 기술정보 화면에 <그림 11>과 같이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입력란이 함께 나타났다. 이 입력란에 기록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편집 완료(submit) 버튼을 누르면 작성자의 의견이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내용은 <그림 12>와 같이 기록의 기술정보 화면에 함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의견 입력 화면

<그림 12> 입력된 의견 내용

Comments

전보배

"싸울 때는 싸우드래도 일할 때는 일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알맞은 투쟁임을 잊지 마시고 ~"라는 문구를 보면서 당시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도 충실하면서, 노동운동 의지를 불태웠던 것 같다.

(3) 기록 기증하기

기록 기증하기(contribution)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대중으로부터 다

양한 기록을 온라인상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다.³⁹⁾ 일단 이 추가 모듈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나 문서, 이미지를 아카이브가 기증받을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및 자료를 포괄하기 위해 이 기능이 지원하는 모든 기록 유형, 즉 구술자료, 동영상, 소리까지 모두 기증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기증받은 기록의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과 기증된 기록을 관리자 승인 후 공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져 있어 내용이나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기증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기증하기 기능 작동 실험을 위해, 사례 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증해보았다. 아카이브에서 기록 기증하기(Contribute an item) 메뉴를 선택하니, 기증할 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그림 13>처럼 나타났다. 사례 기록을 기증하기 위해 ‘이미지’ 유형을 선택한 후 기증할 파일과 기록에 대한 정보를 <그림 14>와 같이 작성한 후 화면 하단의 기증하기(Contribute)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기증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할 수 있는데, 기증 기록을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와 익명으로 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증 조건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관리자가 기증자의 기본 정보(이름, 이메일, 기증 기록 등)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공개 대상 기록의 경우 바로 아카이브에서 공공 서비스됨을 알 수 있었다.

39) Plugins/Contribution, <<http://omeka.org/codex/Plugins/Contribution>>

〈그림 13〉 기증 기록 유형 선택하기



〈그림 14〉 기증 기록 내용 작성

Contribute

What type of item do you want to contribute? Image

Contribute a Image

Upload a file: 찾아보기...

Image Description
An account of the resource

요약정보: 자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
요약정보의 예는 제목, 목적, 내용에 대한 시각적 표현
에 대한 참조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설명을 보
출하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을 아님.

You are logged in as: 권보배

Publish my contribution on the web.
 Contribute anonymously.
In order to contribute, you must read and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4. 맺음말

이 연구는 지역의 산업 공간을 중심으로 노동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 노동 아카이브를 오메카를 활용하여 구축 실험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구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외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드러난 주요 참여 기능을 아카이브에 구현하기 위해 오메카 추가 모듈, 즉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작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실행해보았으며, 실제 산업 노동의 활동 주체가 아카이브와 소통할 수 있는 참여 기능을 함께 구현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노동 관련 아카이브와 기관, 조선 산업의 활동 주체와 접촉하면서 기록 및 기록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컬 단위의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 노동 집단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도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기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아카이브의 인터페이스는 영문 기반으로 작동된다. 실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메뉴 한글화 작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추가 모듈을 설치하여 참여 기능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참여 기능을 공개하고 활용 가능성을 실험해보지 못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아카이브의 인터페이스 한글화가 진행된 이후 통제된

참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통제 실험 후 결과 분석과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구축된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 일부 노동운동가를 제외하면 기록을 생산한 대부분의 주체들은 기록이나 기록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적극적인 기록화가 오히려 노동자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화에 효과적인 인식 확산과 아카이브에 대한 신뢰 확보를 바탕으로 이들이 아카이브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기대해본다.

ABSTRACT

Implement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for Shipbuilding Labor Digital Archives in Young-do, Busan Metropolitan City

Hyun, Moonsoo · Jeon, Bobae · Lee, Dong-Hyun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for shipbuilding labor archives in young-do, Busan, and to find possibilities of building digital labor archives as participatory ones. The methodology of locality documentation has been applied, and locality archives accepting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experiences from shipbuilding industry have been examined. Omeka was applied because it is an open-source software and provides additional functions which support various user participations and web-publishing. Following the the model, firstl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and research of participatory agents and records was proceeded. Secondly, it collected and described information of the agents and records by institutions with records and provenance. Thirdly, it developed archival contents specific to events, persons and workplaces in association with archival information. For the follow-up study, plugins were installed and tested to apply for further experiment with participation.

Key words : participatory archive, labor archive, shipbuilding industry, locality documentation, locality archive, Busan, Young-do

